

광주·전남 고3 학생 등 4만4932명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예방접종센터서 오는 30일까지 1차 접종...내달 9일부터 2차 돌입

광주와 전남 지역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등 4만4932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19일 시작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광주 5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등 2만1932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을 이어간다.

같은 기간 동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고3 학생 1112명·고교 교직원 336명, 서구는 고3 학생 1990명·고교 교직원 537명, 남구는 고3 학생 3276명·고교 교직원 1008명이 1차 접종을 받는다. 북구에서는 고3 학생 4889명·

고교 교직원 1421명, 광산구에서는 고3 학생 4182명·고교 교직원 1162명·대안학교 등 기타 1009명이 백신을 접종받는다.

시교육청은 5개구 예방접종센터에 교육전문직 모니터링단을 배치했다. 모니터링단은 백신접종 진행 상황과 학생·교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2차 접종기간은 오는 8월9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다.

자가격리나 대회 출전,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접종이 어려운 경우 1차는 이달 30일, 2차는 8월 20일에 접종받을 수 있다.

전남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2개 시·군 백신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접종을 진행한다. 대상은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등 2만4000여 명이다.

2차 접종 기간은 오는 8월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다.

전남교육청은 백신접종에 앞서 일선 학교에 접종 일정에 따른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상반응 발생 때 대처방안 등 세부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접종 첫날인 이날 오전 목포실내체육관을 찾은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수능시험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져 다행이다”며 “남은 기간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19일 오전 광주 서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19일 오전 예방접종센터인 목포실내체육관을 찾아 화이자 접종 대상자인 고3 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광주 수험생들 “백신 맞기 전 긴장·접종 후 마스크 벗고 공부 기대”

교사 “2학기 때는 교실에서 마스크 벗고 수업 기대”

“화이자 백신 접종 전에는 부작용 때문에 걱정했는데 맞은 후에는 수능 공부에 전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돼요”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앞둔 광주지역 고3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진 19일 오전,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빛고을체육관은 간편한 복장을 한 서구의 한 고교 수험생들이 길게 줄서 있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미리 작성한 듯한 예진표를 들고 접종을 기다렸으며 옆 친구에게 “긴장 되지 않느냐”며 말을 걸기도 했다.

학생들의 줄 맨 뒤에 서있던 담임교사는 긴장하고 있는 제자를 보며 “걱정하지 말라”며 달래기도 했다.

이어 예방접종센터 봉사자가 “거리 두기를 하며 입장하세요”라고 안내하자 학생들은 발걸음을 옮겼으며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한 뒤 곧바로 예진을 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미리 작성한 예진표를 의료진에게 전달한 학생들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기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렸다. 접종을 기다리면서도 먼저 접종을

한 친구에게 “(주사) 아프냐”고 묻기도 했지만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 들리지 않는 듯 친구는 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상반응 관찰실에서도 수험생들은 친한 친구와 마주보며 “맞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아프면 어떡하느냐. 오늘 독서실 갈거냐” 등을 묻으며 30여분을 대기한 뒤 귀가했다.

수험생 A군은 “접종을 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는데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을 많이했다”며 “접종이 끝나니까 부작용 걱정은 사라졌고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쉬며 공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부작용이 우려돼 처음에는 맞지 않으려고 했는데 학원이나 독서실을 조금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접종하는 것으로 선택했다”며 “우리반 25명 전부 맞는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담임교사는 “우리 학교 3학년 250명 중 1~2명을 제외하고 전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한다”며 “2학기 전까지 2차까지 접종하면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젊은 연령층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또는 심낭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자에게는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 추진단장은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그런 심장의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접종 후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과 활동을 피하길 권고한다”며 “최소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강상태를 관찰하면서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



19일 오전 광주 서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면 바로 병원을 찾아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견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된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